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편하게 주고받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나누는 일도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래도 서로 서로 따뜻한 마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붓다의 일대기를 묘사한 『사람의 맨발』을 보내드립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누구든 ‘성인이나 영웅’이 아닌 ‘인류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싯다르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필에 묻어나는 고민과 슬회를 들여다보면, 작가 역시 ‘실존적 고뇌를 거듭한 인간 싯다르타를 가슴에 담고 사는 수행자’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년 전, 인도 성지순례 중 쿠시나가라의 부처님 열반지에서 누워계신 부처님을 뵈고 한번에 밀려온 큰 울림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한없이 내 안의 아래로 내려가고 이를 통한 정화(淨化), 그리고 우리의 맨발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책 역시 순례 여행을 하면서 ‘길 위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온 세상의 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사람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길 위에서 열반하신 싯다르타의 맨발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만나게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수준 높은 설교나 강연보다는,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더욱 감동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싯다르타의 맨발을 통해 출가 정신을 잊지 말고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한 이 책의 회원처럼 ‘참다운 자유인의 길’, 물론 쉽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떠나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멋진 길’을 가는 길벗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안내해주는 ‘멋진 사람’이 되시면 어떨겠는지요.

불기 2558년 추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